



KIST EUROPE **NEWSLETTER**

KIST Europe Forschungsgesellschaft mbH
Campus E7.1, 66123 Saarbruecken, Germany

9th. AUG. 2023

NEWSLETTER



이번 호 콘텐츠 목차

섹션 이름,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기사 이동 후 다시 본 목차 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이동하신 섹션 또는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및 독일의 R&D 정책 최신 동향	2
유럽의 R&D 정책 동향	2
▶ EIC 이사회, EIC 프로그램[Horizon Europe 등] 참여 저조 회원국 대상 참여 확대 방안 제안	2
▶ EU 집행위원회, 유럽 CCAM 운송 혁신분야 이해관계자 공개의견 수렴	2
▶ EU 집행위원회, 농식품 산업 생태계 전환[회복력,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에 관한 공개의견 수렴	3
▶ EU 집행위원회, 수소 밸리 로드맵 수립 관련 공개의견수렴	3
독일의 R&D 정책 동향	4
▶ 독일연방경제기후부, 수소 발전소 프레임워크 EU와 합의 진전	4
▶ 헬름홀츠 올리히 연구센터, 미래 수소경제 위한 디메틸에테르 활용 가능성 발표	4
자알란트 주 R&D 정책 동향	5
▶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Fraunhofer IZFP), 연료전지 스택 생산 비파괴 품질 테스트 연구	5
▶ 자알란트 대학 & Fraunhofer IZFP, 딜링엔 제철소 수소 파이프라인 보호 협력	6
유럽 환경규제 최신 동향	7
▶ EU 집행위원회,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구축 계획 발표	7
▶ OECD, 나노물질 소수성 지수 결정 시험법(TG 126) 웨비나 개최	8
▶ EU 집행위원회, EDC 사용을 금지하는 'EU 완구안전지침' 개정안 발표	9

KIST 유럽연구소는 유럽과 독일 그리고 KIST 유럽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알란트 주의 R&D 그리고 혁신 관련 주요 정책 관련 트렌드와 함께,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ESG 관련 이슈 중 환경 관련 최신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내

KIST 유럽연구소 대외협력실 기관 협력 및 관련 서비스 문의 서정호 실장 (j.seo@kist-europe.de)	유럽 및 독일 R&D 정책	변재선 책임연구원 (byun@kist-europe.de)
	유럽 환경규제	채자영 연구원 (jayoung.chae@kist-europe.de)
	KIST 유럽연구소 동향	이재상 관리원(js.lee@kist-europe.de)

유럽 및 독일의 R&D 정책 최신 동향 [작성: 변재선 책임연구원]

유럽의 R&D 정책 동향

>> EIC 이사회, EIC 프로그램[Horizon Europe 등] 참여 저조 회원국 대상 참여 확대 방안 제안 [원문: [EIC_Board_Statement_Widening_final31072023.pdf \(europa.eu\)](https://ec.europa.eu/eic-board-statement-widening-final31072023.pdf)]

EIC(European Innovation Council) 이사회는 Horizon Europe 등 EIC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프로그램 재원의 수혜율이 저조한 회원국들(Member States Widening Countries)의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함. 해당 조치들을 통하여 EIC 는, 전반적으로 EIC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고 기술격차가 현저한 15 개 회원국들에게 EIC 프로그램 재원의 최소 15% 수준까지 지원함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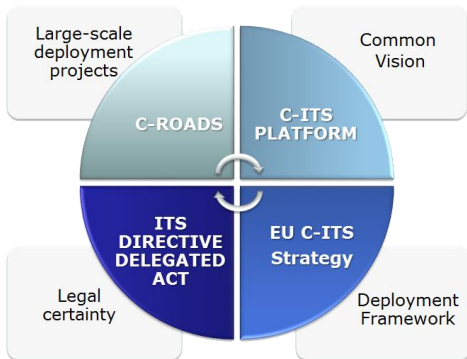
[그림 1: EIC 프로그램 참여 확대 Action Plan / EIC]

※ 15 개 회원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EIC 이사회는 6 단계로 구성된 세부 실행 계획을 제안함. 우선 해당 회원국가 내에서 잠재적 수혜 가능 후보를 적극적으로 ① 식별(Identify)하고, 1 회성 성격이 아닌 ② 구조적 펀드(Structural Fund)의 제공, 국가 별 NCP, 잠재적 수혜 대상 기술에 대한 과제 공고 일정 및 주요 파트너 등 ③ 정보의 공유(Inform), EIC 프로그램의 참여 및 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④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Train) 개발 및 운영, 15 개 회원국 제출 신청서에 대한 ⑤ 공정한(Fair) 평가 그리고, 해당 재정지원 및 조치의 ⑥ 영향(Impact)평가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됨

세부 실행계획 중 정보의 공유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는 EIC 산하 집행기관인 EISMEA (유럽혁신위원회 중소기업지원청, European Innovation Council and SMEs Executive Agency)에서 담당할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 유럽 CCAM 운송 혁신분야 이해관계자 공개의견 수렴 [원문: <https://ec.europa.eu/eusurvey/runner/c1127f68-a96d-a9c1-af09-07ffeb79ac6c>]



[그림 2: C-ITS 기본 개념 © EU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General Research and Innovation, DG-RTD), 미래운송기술 (Connected, Cooperative & Automated Mobility, CCAM) 솔루션 개발 현황과 운영 과제 관련 설문조사를 2023년 9월 말까지 진행 중임. 이를 통해 운송관련 혁신 의견의 공개 수렴(Consultation*)을 진행할 계획임. 이는 유럽 그린 딜 목표와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을 위한 유럽 전략 구현하기 위한 이행 절차의 하나임

※ Consultation: 유럽연합은, 새로운 정책 입안 또는 계획 수립 시, 집행위원회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더 좋은 제안 또는 대안을 수렴하는 '공개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진행함.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수렴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함

유럽 파트너십 CCAM 은 승객과 상품의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커넥티드 차량을 위한 지능적이고 통합된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함

>> EU 집행위원회, 농식품 산업 생태계 전환[회복력,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에 관한 공개의견 수렴

[원문: [SWD_2023_263_F1_STAFF_WORKING_PAPER_EN_V8_P1_2841469.PDF](#)]

EU 집행위원회는 7 월 24 일 농식품 산업 생태계 전환 관련 공개의견수렴 절차인 Consultation 을 착수함. 이번 Consultation 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농식품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 경로(Transition Pathway) 관련 워킹 페이퍼에 대한 피드백을 조사할 예정임.

이를 통하여 전환 경로를 설계하여, 유럽 산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 EU 산업 전략의 핵심 목표임.



[사진 1: 농작물, © unsplash.com, Sandy Ravaloniaina]

>> EU 집행위원회, 수소 밸리 로드맵 수립 관련 공개의견수렴

[원문: [REPowering the EU with Hydrogen Valleys \(roadmap\)](#)]



[그림 3: REPowerEU 설명서 © EU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REPowerEU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소 밸리 (Hydrogen Valleys)" 구축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계획 중임. 2022 년 5 월에 시작된 REPowerEU 계획은 EU 의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수소 밸리"는 생산에서 저장 및 다양한 사용자(운송 부문, 산업) 분배에 이르기까지 수소 산업 생태계(가치 사슬)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 REPowerEU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유럽 내 수소 밸리 구축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공공 및 민간 부문 추가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는 2023 년 9 월 5 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함

독일의 R&D 정책 동향

>> 독일연방경제기후부, 수소 발전소 프레임워크 EU 와 합의 진전

[원문: <https://www.bmwk.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2023/08/20230801-framework-for-power-plant-strategy-in-place.html>]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EU 집행위원회는 수소 발전소 관련 세 가지 조치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BMWK의 독일 수소발전소 전략의 기본 틀을 제공함

① 수소 스프린터 발전소(Hydrogen Sprinter Power Plants): 그린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39p EEG)

대규모 수소 또는 암모니아 저장 시설, 지역 그리드, 수소 클러스터, 그린 수소 혹은 암모니아 수입인프라에 연결되는 입지를 목표로 하며, 재생 가능 수소가 시운전 즉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4.4GW 규모 입찰이 계획되어 있음.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신규 프로젝트와 기존 천연 가스 기반 발전소의 전환 프로젝트에서 적용이 가능함



[그림 4: Green Hydrogen Power Plant 개념도] © Siemens Energy

② 수소 하이브리드 발전소(Hydrogen hybrid power plants): 수소 기반 전기 저장 (hydrogen-based electricity storage) 통한 혁신 개념(§ 39o EEG)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수소 기반 전기 저장 장치(전해조, 로컬 수소 저장 장치 및 수소 발전소)와 결합하여 재생 가능한 수소를 기반으로 제어가능한 재생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총 4.4GW의 입찰 물량이 계획되어 있음

③ 수소 전환 발전소(H₂-ready power plants): 2035년까지 H₂로 발전 원료를 전환하여야 하는 발전소

제한된 기간 동안 천연 가스로 가동되지만 늦어도 2035년까지 수소로 운영을 전환하여야 하는 신규 혹은 기존 발전소로, 총 10GW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입찰될 예정임. 입찰 발전소 중 최대 6GW는 신규 발전소를 위한 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임

독일은 2035년부터 전기 공급을 사실상 탄소 중립 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이를 모든 EU 회원국으로 확장시킬 계획임. 이를 위해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재생 가능한 연료(특히 수소)로 전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망 인프라 구축, 운송 및 저장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헬름홀츠 올리히 연구센터, 미래 수소경제 위한 디메틸에테르 활용 가능성 발표

[원문: <https://www.fz-juelich.de/de/aktuelles/news/pressemitteilungen/2023/dimethylether-wasserstoffwirtschaft>]

헬름홀츠 산하 올리히연구센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취제 스프레이 병에 사용되는 추진제 가스인 디메틸 에테르(DME)가 수소의 장거리 운송 수소저장 매체로 적합하다고 발표함. 해당 결과는 학술지인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최신 호를 통하여 발표됨. 본 연구에는 올리히연구센터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연구소(Institute for a Sustainable Hydrogen Economy)외, 헬름홀츠 에어랑엔/ 뉴렘베르크 연구소(HI-ERN),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 등이 참여함



[그림 5: DME 생산 절차 © 울리히연구소]

발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호주에서 탄소 중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이산화탄소(CO₂)와 결합하여 디메틸에테르를 합성/생산함. 생산된 디메틸에테르는 고압의 저장 장치를 통해 액체 상태로 운반되며, 최종 소비 지역 도착 후 항구에서 수증기 개질(SR: Steam Reforming) 공정을 통해 다시 디메틸에테르는 수소와 CO₂로 분리 환원됨

이렇게 획득된 녹색 수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수소가 생산된 지역으로 디메틸에테르를 운송한 선박에 저장되어 다시 생산 지역으로 반환되어 디메틸에테르 생산 공정에 재활용이 가능함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통한 수송에 비하여 디메틸에테르를 통한 수송 시, 단위 질량 기준, 보다 많은 수소의 수송 및 도착 후 현지 생산이 가능하며, 디메틸에테르는 또한 무독성으로 운송과 위험관리가 보다 용이함

관련논문링크>> <https://pubs.rsc.org/en/content/articlelanding/2023/ee/d3ee00228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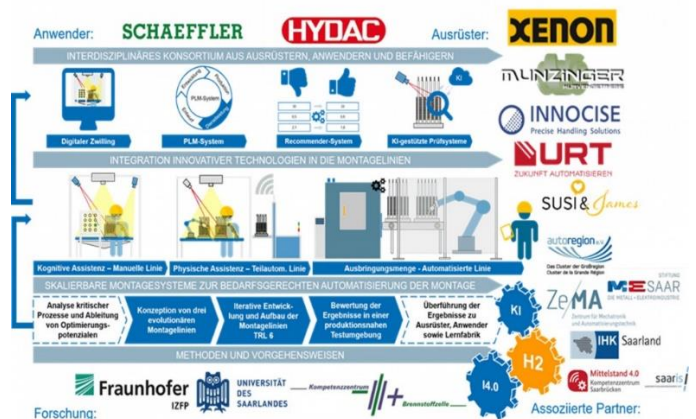
자알란트 주 R&D 정책 동향

>>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Fraunhofer IZFP), 연료전지 스택 생산 비파괴 품질 테스트 연구

[원문: <https://www.izfp.fraunhofer.de/de/technologien/vorhaben/H2SkaProMo.html>]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IZFP)는 연료 전지 스택 제조 공정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수소전기차 저가화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H2SkaProM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담당하는 연료전지 핵심 부품임

해당 연구과제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총 740 만 유로가 지원되며, Fraunhofer IZFP의 주요 개발 분야는 비파괴 품질 테스트를 위한 정밀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발임. 동 연구의 초점은 자동화된 세분화 및 분류 알고리즘 개발을 포함하여 적층 프로세스의 광학적 제어 작업을 수행하고, 스펙트럼 열화상 기술의 추가 개발을 통해 연료 전지 스택 누출의 정확한 감지임. 또한 스택 오류 방지를 위해 기존 알고리즘과 딥러닝 접근 방식을 결합한 각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정밀도를 동시에 제고할 예정임



[그림 6: 연구과제 추진 체계 및 참여기관 © Fraunhofer IZFP]

프로젝트 완료 후(2024년 12월 예정) "Open Lab Factory"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산업계 이전도 계획되어 있으며, 모든 참여기관이 다양한 제품 테스트 수행할 수 있도록 Open Lab Factory에 테스트 절차 통합 예정임

Fraunhofer IZFP 과제 운영 담당자 정보

토마스 슈벤더 연구원(Dipl.-Ing. Thomas Schwender) / e-Mail: thomas.schwender@izfp.fraunhofer.de

▶ 자알란트 대학 & Fraunhofer IZFP, 딜링엔 제철소 수소 파이프라인 보호 협력

[원문: https://www.izfp.fraunhofer.de/de/Presse/Pressemitteilungen/Dillinger_Pipelines.html]



[사진 2: 자알란트 주 딜링엔 제철소]
© Saarbruecker Zeitung / BeckerBredel

딜링엔(Dillinger) 제철소는 수소 파이프라인 보호를 위해 자알란트 대학에 향후 3 년간 80 만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임. 수소가 도금/용접, 산 세척/부식 등으로 강재에 흡수되어 균열을 일으키는 소위 "수소 취성"으로 파이프라인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수소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한스 게오르그 헤르만(Prof. Dr.-Ing. Hans-Georg Herrmann) 교수 등 연구팀은 향후 3년 간 단층촬영 (CT) 기반 비파괴 테스트로 파이프라인 내부의 수소로 인한 손상을 조사하고 강철을 평가하여 수소 저항성 검사를 위한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할 계획임

딜링엔(Dillinger) 제철소 CEO 슈테판 라우버(Stefan Rauber)는 자알란트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에 덜 민감한 철강의 세계 시장 공급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리고 미래 수소 공급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기대한다고 발표함

Fraunhofer IZFP 과제 책임자 정보

한스 게오르그 헤르만 교수(Prof. Dr.-Ing. Hans-Georg Herrmann)

e-Mail: hans-georg.herrmann@izfp.fraunhofer.de

유럽 환경규제 최신 동향

[작성:채자영 연구원]

EU 집행위원회,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구축 계획 발표

[관련 링크: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ystem/files/2023-07/C_2023_5041_1_EN_ACT_part1_v6.pdf]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EU 시민발의(European Citizen' Initiative, 이하 ECI)* 청원에 대하여 즉시 입법조치는 불가하나, ECI 의견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비동물실험 기반 규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축 계획'을 발표함



[사진 3. 실험용 쥐 © Understanding Animal Research]

2021 년 8 월, EU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일명 'Save Cruelty Free Cosmetics' ECI 청원을 출범하였으며, 그로부터 1 년 간 EU

시민 100 만 명의 서명 요건 규정을 충족하여 2022 년 8 월 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한 바 있음

ECI 가 청원을 통해 요청한 입법조치는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확대 및 강화 법안 발의 요구
- 새로운 동물실험 요건 없이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EU 화학물질 규제 혁신
- EU 내 모든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입법 로드맵 구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원회는 7 월 25 일 공식 의견을 통해 화장품 규정 및 REACH 규정 개정이 불가함을 발표함

EU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논쟁

EU 화장품 규정과 REACH 규정 간 동물실험을 둘러싼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특히 2019 년 ECHA 향소위원회가 '화장품 원료로만 사용된다는 이유로 REACH 동물실험 면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판결 후 동물 보호단체 비난이 쇄도함. 이후 ECHA 가 화장품 원료인 호모살레이트(homosalate) 및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2-ethylhexyl salicylate)의 동물실험 데이터를 요청한 것에 대해 화학 회사인 Symris 가 2020 년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논의가 확대됨

동물보호단체 PETA 측은 위원회 공식의견에 대해 'ECI 서명국가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 금지 마케팅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조치'라 비난함. 아울러 '법원 판결 전, 화장품 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수천 마리의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조치 지연'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비판함.

다국적업체 유니레버(Unilever) 측은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진전은 환영하지만,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지 않은 결정은 충격적이며 정당화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밝힘.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5 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 및 시행함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위원회는 공식의견에서 '규제 목적의 모든 동물실험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으나, 단계적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이며 우선적으로 비동물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해성 및 위해성을 식별하는 과학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동물실험이 여전히 중요하며, 모든 생태독성학적 평가지표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비동물실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지적함

위원회는 향후 모든 시험의 종말점(end-point)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론(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으로 대체할 필요성 및 그 방안에 대해 분석할 계획임. 위원회의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은 REACH, 살생물제품규정(BPR), 식물보호제품규정, 의약품 및 동물용 제품 관련 규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될 예정임. 또한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자료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NAMs의 개발, 검증 및 규제적 적용 가속화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 로드맵은 회원국, NGO 단체, 산업계, 학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구축될 것이며, 또한 유럽공동연구센터(JRC),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식품안전청(EFSA), 유럽의약품청(EMA)의 전문적 평가를 거쳐 2025년 1월 최종 발표될 계획임

한편, ECHA는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NAMs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물실험 대체방안에 대한 로드맵 구축 논의를 시작하였음. 위원회는 올 하반기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 로드맵 및 독성 평가 변수에 동물대체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내 로드맵 진행상황을 공유할 예정임. 또한 위원회는 비동물시험법 개발 및 규제적 수용 방안을 위한 전문 과학위원회 구성을 고려 중임

※ 유럽연합 시민발의제도(European Citizen' Initiative, E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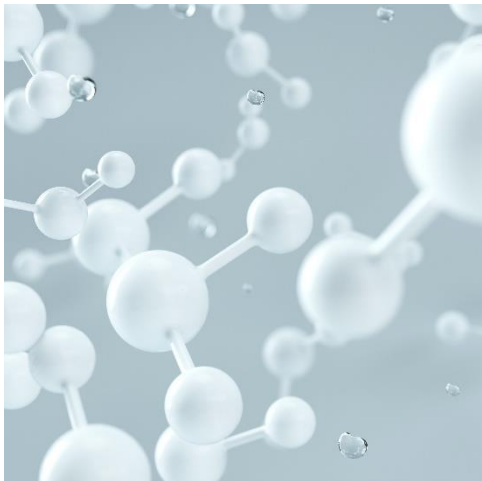
2007년 리스본조약과 함께 도입된 유럽연합의 법제도로써,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입법 의제(legislative agenda) 설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 제안이 100만 유럽연합 시민의 검증된 서명(verified signatures)으로 뒷받침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여 조치를 결정함

관련링크>>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how-it-works_en

※ 뉴스 레터 추가 게재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유럽한국기업 연합회 [KBA Europe] <바로가기>

➤ OECD, 나노물질 소수성 지수 결정 시험법(TG 126) 웨비나 개최

[참가 등록:https://meetoecd1.zoom.us/webinar/register/WN_rIQIjx9DRgiKmSNy_UG-g#/registration]



[사진 4. 나노 구조체 © unsplash.com, D Koi]

OECD는 2023년 9월 20일, '친화도 측정 통한 나노물질의 소수성 지수 결정 시험법(OECD TG 126: Determination of the Hydrophobicity Index of Nanomaterials through an Affinity Measurement)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임

웨비나를 통해 'TG 126 시험법' 하 친화도 측정을 통해 나노물질의 '소수성 지수(hydrophobicity index, Hy)' 결정 방법과, 이를 통해 'TG 126' 사용법 및 한계점 그리고 타당성확인(validation) 방법 관련 설명이 제공될 예정임

'소수성(hydrophobicity)'은 환경 및 생물학적 매트릭스(environment and biological matrices)에서 나노물질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유럽공동연구센터(JRC)에 의해 '나노물질의 소수성 특성화 방법'이 개발됨. 이후 2023년 4월, OECD 산하 테스트 가이드라인 국가 코디네이터 작업반 회의(WNT)에서 'OECD TG 126 시험법'으로 제안 및 채택됨

OECD에 따르면 해당 시험법은 권장된 분산 프로토콜에 따라 계면활성제 처리 및 미처리된 나노물질 분말 수용액에 적용됨

※ 뉴스 레터 추가 게재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유럽한국기업 연합회 [KBA Europe] <바로가기>

➤ EU 집행위원회, EDC 사용을 금지하는 'EU 완구안전지침' 개정안 발표

[관련 링크: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010]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 사용금지 및 단속을 강화하는 'EU 완구안전지침' 개정안을 발표함

위원회는 7 월 28 일, 어린이 장난감 내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EU 완구안전지침(The Toy Safety Directive 2009/48/EC)' 규정에 면역, 신경계,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및 EDC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사진 5. 유아 완구 사례 © unsplash.com,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9 년부터 시행된 'EU 완구안전지침'은 EU 시장 내 출시되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 년 위원회는 이 규정이 실제로 어린이를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보호하는데 취약하다고 평가함. 이에 위원회는 특정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물질에 대한 부속서(Annex)가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영향평가 및 규제조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의 의견을 함께 제시함

개정안에는 다음 분류기준에 속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CMR) 구분 1A, 1B 또는 2
-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 또는 2
- 특정표적장기독성(STOT) 1 회 노출 또는 반복 노출 구분 1
-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개정안이 채택되면 추가된위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포함된 장난감은 어린이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위해성평가 없이 사용이 금지됨.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물질의 장난감 내 사용을 허용함

NGO 소비자단체인 BEUC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알려진 환경호르몬 및 의심되는 환경호르몬을 대상으로 전체 제품군에 사용이 금지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유럽완구협회 TIE 측은 이번 개정안이 장난감 제품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을 지적하며, 99 % 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장난감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함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9 월 25 일까지 진행되며, EU 이사회 및 EU 의회는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임 

※ 뉴스 레터 추가 게재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유럽한국기업 연합회 [KBA Europe] [<바로가기>](#)